



연못 위의 개구리, 173x123cm, 핀홀카메라, 아날로그 C-print, 1999

김순기의 아날로그 핀홀 사진의 재발견



서지와 빛, 62x50cm, 핀홀카메라, 아날로그 C-print, 2005

핀홀사진이 이렇게나 아름다웠다니.
프랑스 시골 마을에서 작업을 해온 원로 예술가 김순기의
핀홀사진을 보면,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에디터 | 김영주



연못 위의 나무, 100x80cm, 핀홀 카메라, 이블로그 c-print, 2007





저녁식사 2, 100x80cm, 핀홀카메라, 아날로그 c-print, 2005

호랑이와 빛, 173x123cm, 핀홀카메라, 아날로그 c-print, 1998



지난 1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김순기의 대규모 회고전 <김순기: 게으른 구름>이 열렸다. 그는 1971년 프랑스로 건너가서 예, 회화 등 지속적으로 작업 활동을 해오고 있다. 이번 전시를 통해 프랑스에서 작업한 신작과 드로잉, 메모 등 다양한 작품을 공개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핀홀사진이었다. 지금까지 작가가 필름으로만 보유하고 있던 핀홀사진에는 평범한 식탁, 햇빛을 머금은 정원의 평화로운 풍경이 담겨 있다. 핀홀 특유의 흐릿하지만 따뜻한 감성이 느껴진다.

핀홀 카메라는 겹게 칠한 내부의 한쪽 면에 렌즈 대신 작은 구멍을 내고, 반대쪽 면에 필름을 위치시켜 장시간 노출을 주는 프로세스로 작동된다. 오랜 시간 노출을 줘야 하고, 빛의 양이나 다른 요인에 따라서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물이 나온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갖고 핀홀 카메라로 촬영을 하지만, 예상보다 좋지 않은 결과물에 실망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그는 자신의 작업실 내부와 외부에 핀홀 카메라를 설치했다. 그리고 평소 그대로의 식탁, 서재와 정원의 모습을 포착했다. 그에게 촬영이 산책을 하거나, 텃밭을 가꾸고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행위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특별한 대상이나 순간을 찾기 위해 멀리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 장면들에 주목했기에 더욱 인상적이다. “세상의 모든 사물과 풍경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어서 의미 있는 것과 의미 없는 것을 나누는 것이 무의미하다.” 고 믿는 그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김순기는 자신의 핀홀카메라 사진에 '바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른바 바보 사진. 사진의 기교에 얽매이기보다는 최소한의 개입으로 빛, 바람, 시간이 자연스럽게 이미지를 만들도록 내버려 두었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 공을 들여 특정 순간을 담지 않고, 억지로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려는 작가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이처럼 핀홀사진을 촬영하는 그의 방식과 태도는 다른 사진가들과 차별화되어 인상적이다. 대표적으로 안셀 아담스가 10대 시절 핀홀 카메라로 사진을 촬영했는데, 이는 사진 촬영을 위한 다양한 시도 중 하나였을 뿐이다. 그 외에 다른 작가들도 꽃, 인물 등 특정 대상을 독특한 방식으로 촬영하고자 핀홀 사진을 선택한 바 있다.

김순기 회고전을 기획한 국립현대미술관 이수정 학예사는 그의 작업이 동양미학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말한다. “작가는 시각적으로 웅장하거나 화려한 장면을 지양하고, 자연스럽게 장면들을 담아낸다는 점에서 ‘무위’를 지향한 도가의 미학과 맞닿아 있다. 또 ‘유희’ 역시 작가에게 중요한 개념으로, 와유의 미학을 추구한 동양미학과 유사하다.”라며 김순기의 작업을 설명한다. 역시나 그는 삶의 본질을 잇게 하는 분주함을 비판하고, 유희의 즐거움과 게으른 삶에서 발견되는 신선함을 예찬한다. 그래서일까. 김순기의 핀홀 사진을 보고 있으면, 어느새 사라지고 마는 찰나의 소중함과 여유로운 삶의 가치를 다시금 깨닫게 된다.

김순기

회화부터 설치, 드로잉, 사진, 영상 등 다양한 매체로 작업을 해오고 있다. 1971년 프랑스로 건너갔고, 1986년부터 파리 교외 비엘메종에서 농가를 지으며 작업 활동을 하고 있다. 대표작으로 상황의 우연성을 구성요소로 삼은 <조형상황>, 위안부 문제를 다룬 비디오 작품 <무명> 등이 있다.



정원과 돌, 100x80cm, 핀홀카메라, 아날로그 c-print, 2008